

다니엘서 - 제172번

파티마의 그림자: 가톨릭 교회의 예언적 환시 뒤에 숨은 사탄의 영향력 밝혀내기

Jeff Pippenger

2024-04-02

파티마의 예언은 사탄이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타날 때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조직을 그에게 넘겨주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사탄의 준비 작업이었다. 이는 그것이 "사탄의 권능의 걸작—그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보좌에 앉으려는 노력의 기념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기적을 행할 능력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을 이끄는 데서 파티마의 역할을 밝혀 주는 예언적 증언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 미혹될 처지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이다. 파티마의 예언은 가톨릭 내부의 투쟁과 가톨릭이 무신론과 벌이는 전쟁을 다루었다.

가톨릭주의와 무신론 사이의 전쟁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주제이다. 그 투쟁의 예증은 1798년에, 곧 40절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남방의 왕인 나폴레옹이 1798년에 교황을 사로잡아 간 전투로 시작되었으며, 그 절 안의 증언은 이어서 북방의 왕이 1989년에 남방의 왕을 휩쓸어 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 역사(1798년부터 1989년까지) 속에서, 1917년과 1918년에 나타나는 두 적대 세력은 각각 예언적 상징으로 표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절의 전체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두 증언을 서로 연결시킨다. 파티마의 예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적인 예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주제이며, 그러므로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할 역사이다.

이때 영혼이 안전을 얻는 유일한 길은 매 걸음마다 '주께서 그의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사람의 지혜에 묻고 의지하여 유한한 인간의 주장들을 신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니, 우리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데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그의 말씀의 예언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필요로 하며,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분명한 계시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의 징조, 1894년 10월 1일.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번째 대리전쟁에서는 그 이상을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높이는 세력이 소개된다. 그 절은 주후 200년에 성취되었는데, 그때 "로마인들이 이집트의 어린 왕을 위하여 개입하였고", "안티오쿠스와 빌립이 꾀한 멸망으로부터 그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절과 주후 200년의 역사는, 일요일 법령 직전에, 약화된 푸틴의 대체자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국제연합(셀레우코스과 마케도니아의 빌립)이 러시아 영토를 취하여 상호 이익을 위해 분할하기로 결정한 때에, 교황권 로마(두로의 음녀)가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위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임을 밝혀 준다.

서기 533년과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예언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때에 되풀이될 것이며, 그 구절은 용(이교 로마)이 교황권을 위해 세 가지를 제공할 것임을 밝힌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2.

이교 로마의 용은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330년에 그 "자리" 곧 로마 시를 교황권에 주었다. 클로비스는 496년부터 그의 군사적 "권세"를 교황권에 주었고, 533년에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시민적 "권위"를 교황권에 부여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 이교 로마는 다니엘 11장 16절, 31절, 41절에 상징된 바와 같이 교황권을 왕좌에 앉혔다. 미국이 세 번째 대리전에서 승리할 때, 교황권은 파티마 예언의 주제인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을 패배시킬 것이다. 이 대리전들은 진리의 서명을 지니고 있으니, 이 세 전투가 모두 교황의 대리 군대에 의하여 성취되기 때문이다.

첫째이자 마지막 교황권의 대리 군대는 미국(배도한 개신교)이다. 중간의 대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나치들이며, 그들은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공산주의 러시아에 맞선 가톨릭의 대리 군대였다. 세계 대전은 세 차례이며, 대리 전쟁도 세 차례이다. 세계 대전들과 대리 전쟁들 모두에서 그 둘째 전쟁은 나치즘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라피아 전투에서 처음으로 11절과 12절을 성취한 변경선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제3화의 이슬람의 세 차례 타격 가운데 둘째 시기에 성취되고 있으나, 이슬람은 그 특정한 전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타격은 2001년 9월 11일 영적 영화로운 땅을 향한 것이었고, 세 차례 타격 가운데 마지막 타격은 일요일 법령 때에 이르며, 다시 영적 영화로운 땅을 향한 것이다. 셋째 화에 속한 이슬람의 세 차례 타격 가운데 두 번째 타격은 2023년 10월 7일 문자적 고대 영화로운 땅을 향한 것이었다. 그 전쟁은 프톨레마이오스가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바로 그 동일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쟁들은 모든 이상(異象)의 효력이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며, 그 사실을 기록한 이는 에스겔이었다. 그 역사 가운데에는 이슬람의 셋째 화의 도래, 대리전의 둘째와 셋째 전투, 미국 남북전쟁의 반복, 미국 독립전쟁의 반복이 표상되어 있다. 이 전쟁들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역사 동안 성취되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주께서는 마지막 셋째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셋째 화인 이슬람이 민족들을 더욱 격노하게 함에 따라, 자신의 군대를 기치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리니,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6-8.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고 듣는 능력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음이라.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줄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름으로 복되며,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마태복음 13:13-16.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그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들을 대표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10.

그가 들은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이었고, 나팔은 전쟁의 상징이며, 그 음성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보았다. 돌아보니 일곱 금 촛대를 보았고,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서 계셨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다. 그의 머리와 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군 빛난 놋과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그 힘으로 비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12-17.

요한이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을 때 본 그리스도의 이상은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바로 그 이상이었고, 이사야가 6장에서 본 바로 그 이상이었으며, 또한 바울이 일곱 우레의 역사를 보았을 때 본 바로 그 이상이었다.

겸손은 마음의 거룩함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철저히 겸비해지고 굴복하게 된다. 욕이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외쳤다.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룹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부르짖었다. 다니엘은 거룩한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말하였다.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음이 되었나이다.'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들을 들은 뒤에도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다. 예수의 품에 기대어 그의 영광을 보았던 사랑하는 요한도 천사들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를 더 가깝고 지속적으로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인정할 만한 것은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시대의 징조, 1887년 4월 7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는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적 사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사건들은 전쟁에 대한 묘사이며, 그 전쟁들의 표상 속에서 'marah'로 표현된 여성형 'mareh'라는 원인이 되는 환상이 다니엘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다니엘서 11장에 제시된 전쟁들을 가리키신 것이다. 또한 보는 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환상을 보려면 뒤돌아야 하는데, 이는 음성이 뒤에서 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전쟁들은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의 묘사이다. 과거의 그 전쟁들에 대해 들음으로써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에 대해 교훈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그에게 볼 눈과 들을 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에스겔이 환상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했을 때, 이는 그가 하늘 성소를 본 환상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그 밖의 것들 가운데서도 "바퀴 안에 바퀴"를 보았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것을 인간사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규정한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북쪽에서 오는 듯한 회오리바람을 보았는데,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호박빛 같은 것이 있었다.' 서로 교차하며 맞물린 여러 바퀴들이 네 생물에 의해 움직였다. 이 모든 것 위 아주 높이에는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모습의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룹들 가운데 그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상이 나타났다.' 에스겔 1:4, 26; 10:8. 바퀴들의 배열은 너무 복잡하여 얼핏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으나, 그것들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그 손에 의해 지탱되고 인도되는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 위, 사파이어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이 계셨으며; 보좌 주위에는 신적 자비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었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이 바퀴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이끌었듯이,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도 신적 통제 아래 있다. 열국의 다툼과 소란 가운데서도,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이는 여전히 땅의 일을 주관하신다.

차례로 자신들에게 할당된 시대와 지위를 차지해 온 열국의 역사는, 그들 자신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중에 증언해 온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한 자리를 정하여 주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분의 손에 들린 다림줄에 의해 측량되고 있다. 모든 이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위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표시해 두신 역사, 곧 과거의 영원으로부터 미래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에서 고리와 고리를 이어 하나로 결합하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행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때에 무엇이 기대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예언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한 모든 것은 역사의 페이지들 위에 그 자취를 남겼으며, 아직 장차 올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모든 지상의 권세가 최후에 전복될 것임이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선고될 때 선포된 예언 속에 그 메시지가

주어져 있다." 교육, 178, 179.

처음 보기에는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복잡한 바퀴들은, 민족들의 다툼과 소요로 표상되는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밝혀 놓으신 역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상 통치권의 최종적 전복을 확인해 준다.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는 모든 이상(異象)의 효력이 성취되는 지점이며, 그 역사 안에서 그 바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밝히신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나타낸다. 재난의 시작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으니, 이는 바로 그때에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치는 천사는 교회와 땅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의 표를 찍는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그 전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고 듣는 이들에게 슬픔을 안겨 준다. 인침의 역사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최후의 몰락을 밝혀 주며, 그 나라들이 몰락하는 과정은 과거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추적되어 왔다. 이사야는 6장에서 요한, 다니엘, 에스겔, 욥, 바울과 동일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시대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자원했지만, 그 메시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에 내가 아뢰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두렵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내가 여쭙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거주하는 자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 사람이 없으며, 땅이 철저히 황무하게 되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 보내시고, 그 땅 한가운데 큰 황폐가 있을 때까지라. 이사야 6:8-12.

이사야가 받은 대답은 그가 "그 땅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봉인의 메시지는 전쟁의 시기에 주어지며, 그 전쟁은 모든 선지자들이 보았던 "marah" 환상의 해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외적인 메시지는 내적 경험을 일으키도록 고안되었지만, 오직 "들을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의 교황 대리 군대의 연관성은 둘째 대리 전쟁에서의 둘째 대리 군대와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듯 서로 정확히 부합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자체도 둘째 대리 전쟁과 서로 부합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되고 있는 라피아의 국경 전쟁과 둘째 대리 전쟁의 연관성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되어 셋째 화의 이슬람의 둘째 타격을 나타내는 것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예언적 바퀴들 안의 바퀴들을 표상한다.

1999년에 존 콘웰이 저술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당시 존 콘웰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지저스 칼리지 선임연구원이었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언론인이자 작가였다. 그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재위한 로마 교황의 역할을 다루었다. 그 책은 피오 노노로 알려진 교황 비오 9세의 오른팔이었던 훗날 교황이 될 인물의 조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1849년 공화주의 군중이 바티칸 경내를 습격하자 교황 비오 9세는 로마 시를 떠나

도피하였다. 그가 망명길에 데리고 간 사람은 에우제니오 파첼리의 조부였다. 에우제니오 파첼리는 교황 비오 9세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의 손자였고, 훗날 비오 12세가 되었으며, 에우제니오 파첼리에 관한 그 책의 제목은 『히틀러의 교황: 비오 12세의 비밀사』였다.

이 책에서 콘웰은 교황 비오 12세(이전의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정권의 유대인 박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탐구한다. 그는 비오 12세가 홀로코스트를 규탄하는 데 있어 공개적으로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전쟁 중 그의 비도덕적 지도력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콘웰은 비오 12세의 교황 재임 기간에 대해 그의 외교적 배경과 당시의 복잡한 정치 역학을 포함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그는 나치 독일에 대처하는 바티칸의 접근 방식을 검토한다. 콘웰은 비오 12세가 홀로코스트에 맞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개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가 1933년에 추기경으로서, 가톨릭이 히틀러가 추진하는 일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히틀러와의 정교협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부 나치 전범들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각국으로 도피함으로써 정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이 탈출하여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데 사용한 주요 방법들은 다음과 같았다:

취길들: 취길들은 가톨릭교회와 동조적인 정보기관들을 포함한 여러 조직들이 나치와 그 밖의 도피자들이 유럽을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 구축한 비밀 탈출 경로들이었다. 이러한 경로들은 흔히 거짓 신분, 위조 문서, 밀입국 네트워크의 사용을 수반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조 문서: 많은 나치 도피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숨기고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위조 여권, 비자 및 기타 여행 문서를 입수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문서들을 사용하여 남아메리카에 이르기 전에 중립국들이나 동조적인 국가들을 거쳐 이동하였다.

당국의 공모: 어떤 경우에는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동조적인 관리들이 나치 도피자들의 존재를 눈감아 주거나, 그들이 체포를 피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일부 정부들, 특히 나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가진 정부들은 이들 인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법적 허점: 일부 나치 전범들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법적 허점이나 느슨한 범죄인 인도법을 이용하여 유럽으로의 인도를 피했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기소를 받게 될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라트라인, 위조 문서, 당국의 공모, 그리고 법적 허점이 결합됨으로써 나치 전범들은 남아메리카로 도피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여러 해 동안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ChatGPT, 2024년 3월.